

“빛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더욱 빛이 난다”

-한지위의 별 드로잉

최병식/미술평론가

연두와 주황색 빛을 띤 감나무 가지가 흐드러지는 청도의 작업실을 찾았다. 사방에 온통 감나무가 제 무게를 못이겨 어찌할 바를 모르는 별천지 이곳에 들른 것은 2015년 10월이었다.

그전에 코엑스 아트페어에서 눈에 띠는 작품을 발견했고, 모처럼 순수의 시대를 연상케 하는 명징성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아트페어는 수 천여점의 국내외 작품들을 만나게 되고, 풍요로운 안복을 누리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어쩌다가 운이 좋으면 주옥같은 보석들을 만날 수 있어 즐거움을 선사한다.

감나무밭 한 중심 작업실 주인공은 '심향(沁香)' 김선화 작가(1961-2019)이다.

호에서 보면 언뜻 수묵화를 떠올리게 된다. 실제로 그녀는 청년시절 한국화와 서예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틈틈이 자수를 즐겨 하였다. 30대 중반에 계명대 서예과에서 수학하였으나 이후 줄곧 문인화류의 회화작업을 하다 2009년 한지와 캔버스, 실, 멍 등의 재료를 사용하게 되고, 2014년에 들어 회화자수를 통한 회화적 세계관을 시도하게 된다.

점화(點化)된 별, 삶의 투영

처음 그녀의 작업은 '봄(Spring)' 시리즈로 출발한다. 2014년 한 해는 흐드러지는 감나무밭 한 가운데 그녀의 스튜디오가 위치하듯이 풀잎과 새싹, 생명력을 연상케하는 선들에 의해 형상과 비형상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 풀잎과 곤충, 꽃들이 등장하는 소재들과 함께 사실성과 사의성, 여백감을 통해 현대적 초충도를 보는 듯한 독특한 화면을 연출하였다.

하지만 이 해에는 마치 점처럼 미물화하여 해석된 추상적 실험에 진입하게 되고, 이후 2019년 2월 작고하기 전까지 4-5년 동안 '스타필드' 시리즈로 이어지면서 수십여점의 작품을 남기게 된다. 그 출발점에는 「스타필드(Starfield)-1401」이 있다. 소재는 '별'이었고, 감정이입은 자신의 삶, 가치, 공존과 소통의 미학이었다.

나는 어둠을 갈망했다. 그 밑 바탕에는 나라는 존재감을 찾기 위해서.... 밤하늘을 보면 유난히 빛이 나는 별을 보았다. 나도 저 빛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어둠을 대비하지 않고는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업노트에서는 반복해서 별에 대한 단상을 말하고 있다. 그녀의 생각은 "실로 한 올 한 올, 점과 선이 되어서 인연이 닿는 것과 소통한다."라는 말에서 그가 존경했던 수화 김환기의 '점화(點畫)'에 대한 생각에 가깝게 접근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형상의 본질과 생성, 소멸의 과정에 대한 삶의 성찰을 되뇌이고 있다. 그와 함께 "어떤 작업을 합니까? 빛은 어둠이 있기에 더욱 빛이 난다."라는 작업메모는 자신이 영위한 삶의 과정과 많은 부분이 닮아 있음을 느끼게 된다.

2014년 이전 작업들은 문인화류의 부채 그림이나 실험적인 서예작품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스타필드(Starfield)-1401」는 그가 드로잉으로 남겼던 별자리들의 도상을 형상화한 초기 작품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부분적으로 이 작품에도 나비나 별의 형상이 등장). 이어서 이듬해 2015년에는 「스타필드(Starfield)-1501,1503,1504,1505」에서 수묵발색과 오방색 선이 등장하는 등 별무리의 형상으로 실험하고 있다.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여기까지가 본격적인 「스타필드」시리즈의 전 단계 실험 과정이었으며, 「스타필드(Starfield)-1507」 이후로는 한지 자수와 다풍적 레이어로 이어지는 추상세계를 선보이게 된다.

이때의 작업들에서는 형상이 사라지면서 점화(點化)되며, 수많은 생명의 씨앗을 연상케하는 '자수(刺繡)점'들이 등장한다.

점과 점 사이, 그리고 점으로 연결된 공간은 무한의 공간이며, 시간 역시 찰나의 순간부터 끝없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 주인으로서 존재한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주인이지만 객관적으로 우리 모두가 주인인 것이다. 그리고 주인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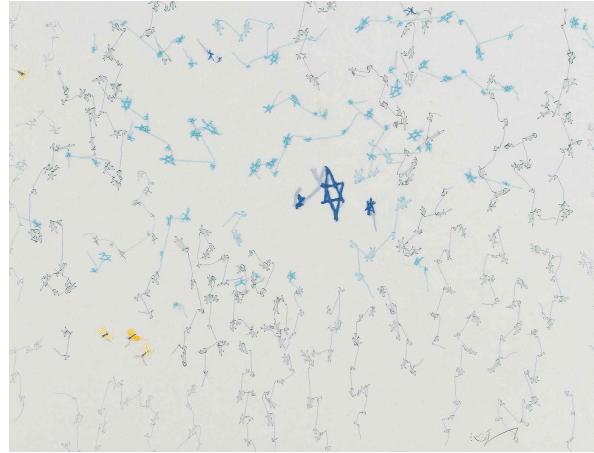
그녀의 포옹은 개별적 존재들에 대한 소중함을 말하며, 언제나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생각한다. 모든 점들이 자신의 정체성이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구조는 오히려 부분과 개별적인 존재를 소중히 여길 때 의미를 지닌다는 생각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이점은 김선화의 매우 핵심적인 '존재론'이기도 하다.

2016년도에 접어들면서는 세 가지 실험형식이 나타난다. 첫째는 별의 점들이 더욱 미립자적 형태로 평렬적 구조로 흩어지면서 별자리를 형성하거나, 동어반복적 현상과 함께 기호화되면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형성하고, 한지 자수가 겹쳐지는 독자적 세계관을 전개하며, 둘째는 강렬한 선을 구사하면서 성채(星彩)를 연출하는 시도이다. 세 번째는 다양한 별자리의 자유로운 선들이 배경 레이어에 나타나고, 그 위 한지 레이어에 별들의 이미지가 수놓아지는 현상이다. 미니멀적 단순성과 여백, 한지 중첩으로 연출되는 몽환적 공간감, 모두 이 해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변화들이다.

관류와 장벽

김선화는 4살 때 열병으로 인한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고 줄곧 신체적 장벽을 지니고 살아왔던 작가이다. 2015년 유방암진단을 받고 2016년 1월, 수술과 함께 이듬해까지 방사선치료를 거듭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2018년 재생불량성빈혈이라는 희귀난치병으로 투병하다 작고하게 된다.

"빛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더욱 빛이 난다"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더욱 먹먹하게 느껴지는 2016년은 작가로서는 가장 왕성한 예술적 실험이 진행되었던 시기이자, 암수술이 겹쳐지는 한 해이기도 했다. 정반대의 현실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 사실 자체가 심향 김선화를 이해하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스타필드(Starfield)-1401」 2014, 한지위에 실(Thread on Korean paper) 48×6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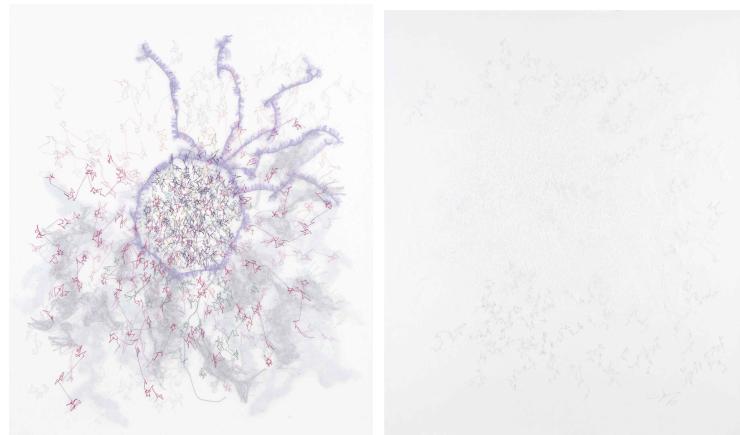
파이널 2년간 즉, 2017년과 2018년은 「스타필드(Starfield)-1701,1707」과 같이 비교적 대작들이 제작된 시기이면서 중요한 작품들을 남기게 된다. 경향은 '점화(點化)'과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일감을 형성하면서 밀집되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으며, 「스타필드(Starfield)-1704」에서는 상형적인 굵은 선조들이 배경레이어로 작업되고 화면의 새로운 구성체로서 기호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선화가 말하는 별의 언어는 2017년이 되면서 급격히 단순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색채가 절제되고 백색 선들의 자유로운 변화가 화면 전체에 나타난다. 「스타필드(Starfield)-1708,1712」서예의 필선에서 체득된 필감과 선조 감각이 인상적인 이 시리즈들은 흰선 드로잉으로 일관된다.

그 해 말에서 2018년 작업까지는 원형으로 집중된 별의 형상들이 선묘 유희와 함께 나타나면서 평렬적 '점화(點化)'가 갖는 정적과 함께 그로부터 분화하고 역동하는 화면으로 전환한다. 「스타필드(Starfield)-1809」와 「스타필드(Starfield)-1810」은 그의 파이널 두 작품이지만 대조적인 감정적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죽음을 앞둔 그녀가 '관류(貫流)'의 평화와 정적을 유희하는가 하면, 강렬하고도 드라마틱한 선조와 색채, 황도십이궁 중 '궁수자리(Sagittarius)'나 '처녀자리(Virgo)'와 같이 별들의 무희가 역동하는 빅뱅 스펙트럼으로 마무리되는 두 양단의 감정을 절필로 남기고 있는 것이다.

한지위의 별 드로잉

흔히 자수를 '수양과 치유의 미학'이라고 말한다. 최근 들어 여류를 중심으로 한국에서도 많은 작가들이 자수를 작품에 도입하는 사례가 있고, 외국에서는 한국 동시대 여성성을上げ는 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물론 김선화의 삶이 갖는 특수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과정이 한편 '치유'와 함께 자신의 세계관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이었을지도 모른다. 동시에 분명한 것은 김선화의 작업이 글로벌 트렌드나, 여성성에 대한 논의와는 거리가 있는 '자생적(自生的) 표현 수단'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그가 한땀 한땀 실을 다루어가고 선율로 전화(轉化)하는 유려한 표현력과 자유자재의 드로잉으로 나타난 선율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좌:「스타필드(Starfield)-1810」한지위에 실(Thread on Korean paper) 59×51cm, 서명없음 우:「스타필드(Starfield)-1809」한지위에 실(Thread on Korean paper) 127×111cm. 절필작

얼마 전, 그녀가 여가로 제작했다는 병풍 자수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실적이고 정세한 기술이 자수 전업작가들에 못지 않는 수준이었던 것을 기억한다. 논점은 김선화의 자연주의, 인연, 생성, 소멸 등을 상징하는 우주의 세계, 별들의 점화(點化)에서부터 선율과 드라마틱한 드로잉에 이르기까지 막선이나 서예, 캔버스, 안료가 아닌 바로 그 자수를 통해 순전한 이상과 희망의 세계를 구가했다는 점이다.

두 인연

종이는 한지 분야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북 의령의 신현세 옹이 제작한 한지를 주문하여 사용해 왔다. 세계적으로 저명해진 전통한지를 통한 문화재복원용 종이들은 배경이 그대로 비춰질 정도로 얇지만 상상 외로 견고하고 종이 자체의 아름다움을 내뿜고 있다. 바로 신옹의 솜씨이기에 4-5개의 다품 한지 레이어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그로부터 김선화만의 독자적인 화면 깊이와 층차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른 시각에서 하나의 소중한 인연, 바로 작가의 동생 김중희이다. 그녀는 원래는 음악을 전공했었다. 오로지 언니의 삶과 동행하면서 동료예술인이나 친구이자 가족으로서 말없이 긴 시간들을 함께하였다. 언니의 흔적을 재정리해가는 모습은 ‘시간의 예술’이라고 말하는 작가의 자수와 닮아 있다.

5년의 불꽃

심향 김선화 작가의 예술세계 정점은 사실상 작고전 5년간 그리 길지 않은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에서는 투병 시기와 겹쳐지는 기간이지만 세상의 만물이 모두가 소중하다는 평등성을 말하는 작가의 항상심은 절필작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다면적인 실험의지를 불태우면서 파이널 두 점의 전혀 다른 작품을 남기게 된다.

내가 말하는 구조주의는 기존의 구조주의 한계를 넘어선다. 기존의 구조주의는 부분들의 총합인 ‘구조’의 견고함과 완결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내가 주장하는 ‘구조’는 오히려 ‘부분’과 ‘개별’적인 존재의 소중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녀의 관심과 표현 대상은 언제나 미물이다. 마이크로의 세계를 보는 듯한 작고, 축소된 미립자의 세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미물과 같은 작은 별들이 모여 은하단, 우주를 형성하는 구조이다. 주요 기법이나 스타일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만 미술사적 정설과 모더니즘 이후 이러 저러한 사조에 영향을 받거나 몰입된 작가는 아니다.

본격적인 예술세계를 전개한 5년간은 시작부터 절필작까지 순전히 작가의 체현된 사고, 존재론, 어떠한 수사를 읽어내는 미술사적 능력보다도 그녀의 진정성과 자세의 진지함과 함께, 필선, 실드로잉, 한지 레이어 등으로 진행되었다. 화려한 미사여구가 그리 필요하지 않은 담백하고도 명료함이 작가의 작품 곳곳에 스며있는 것이다.

라캉의 한마디

작가가 남긴 작품수는 60-70여점, 드로잉 수십여점이 있다. 순연(純然)한 자연의 물성과 모든 미물을 소중하게 생각한 작가의 숨결을 오롯이 읽을 수 있는 한지 위의 우주(별) 드로잉은 특히나 인상적이다. 그녀의 절대가치는 거대한 스케일도 아니고, 학술적 평가가 진행된 적도 없다. 하지만 세계관의 독자성은 대구, 경북지역은 물론, 미술사에서도 의미있는 기록으로 남아야 할 것이다. 문득 라캉의 한마디가 스쳐 간다.

“많은 인연을 사귀어 본 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한 명도 너에게 우주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크 라캉(Jacques Lacan)

"Light Shines Brighter Through Darkness"

-Drawings of Stars on Korean Paper Hanji

Choi Byungsik | Art Critic

I visited an artist's studio in Cheongdo strewn with glistening green and scarlet hues on persimmon branches spread far and wide. It was in October 2015 my encounter with this another world took place where I beheld around me quivering persimmon trees with bowed branches burdened with the unbearable weight of their fruits.

Before my visit, I discovered a work that caught my eye at the COEX Art Fair. I was struck by how it was brimming with clarity that reminded me of the time of innocence. A source of inspiration and pleasure for the eyes, the art fair gives us an opportunity to meet thousands of works from across the country and across the world, and if we are lucky to find gems that deepen our joy through their art.

Kim Sunhwa (1961-2019), also known by her pen name Simhyang is the protagonist of the studio surrounded by the dense curtains of persimmon trees.

At first glance, her work appears to have a similar style to an ink and wash painting. During her youth, she had the chance to learn Korean painting and calligraphy, and in her spare time she enjoyed embroidery. In her mid-thirties Simhyang studied calligraphy at Keimyung University, but since then she produced paintings in the style of literati painting. In 2009, she began to use materials such as Korean paper "hanji," canvas, thread, and ink ("muk"), and in 2014 she attempted to develop her practice of embroidery painting into a pictorial language to express her worldview.

Reformation of the Stars, Reflection of Life

The artist started out with the "*Spring*" series. In 2014 Simhyang made works in which both the form and formlessness come together through the lines in a manner reminiscent of the blades of grass, buds, and life force that surrounded her studio in a persimmon field in excessive bloom. Marked by the use of realism, expression of the artist's inner thoughts and impressions, and empty space, along with the depiction of grass, insects, and flowers, the paintings evoke "*Chochungdo*" (paintings of plants and insects) in a unique and contemporary manner.

However, in the same year Simhyang transitioned into abstraction experimentation through her interpretation of forms miniaturized to dots. She continued working on the "*Starfield*" series for four to five years before her death in February 2019 leaving behind a body of work comprising over dozens of works. The starting point for the series is "*Starfield-1401*." The stars provided the subject and the work engaged upon her own life, values, and the aesthetics of coexistence and communication.

I longed for darkness. In order to discover my existence in the bottom depth of darkness...I saw a celestial light exceptionally luminous in the night sky. I so desperately wished to be that light. Darkness is a preparation for the coming of light. I thought the same holds true for the reality we live in.

Simhyang's reflection on stars permeates repeatedly throughout the pages of her notebook entries. She writes "stitch by stitch the thread becomes a line of dots communicating with what is bonded through relationships" which seems to show her deep interest in the "Pointillist" works by Kim Whanki (Pen name: Su-Ha) whom she admired. Ultimately Simhyang's art offers a reflection on life through the exploration of the elements of form and the process of creation and extinction. "Light shines brighter through darkness" written in her notebook seems to suggest the meaning of her words derived from much of what she had experienced over the course of her life.

Since Simhyang's works created before 2014 mostly encompassed fan paintings in the literati tradition or experimental calligraphy, "*Starfield-1401*" is a significant early work that portrays by drawing the star constellation in iconographic motifs. (Embodied forms of a butterfly or bee are partially found in this work as well). The following year in 2015, "*Starfield-1501, 1503, 1504, 1505*" show the artist's experiment with the embodiment of stars by using ink wash painting techniques and lines based on "Obangsaek" (traditional Korean color spectrum). During this relatively brief period, Simhyang executed the full range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of the "*Starfield*" series. After the completion of "*Starfield-1507*" she worked with an abstract approach using embroidery on hanji (traditional Korean mulberry paper) and creating multiple layers.

During this period forms dissolve from Simhyang's work into a reformed mass of dots and the "embroidered dots" emerge resembling the seeds of countless lives.

The distance between the dots and the space connected by dots stretch into infinity, and time also flows endlessly from a fleeting moment. And within these relationships each person exists as a master. On a personal level, I am the master of my life, but from an objective point of view, we are all masters. Moreover, masters should accept and embrace rather than possess.

In Simhyang's work, her embrace speaks of the preciousness of every individual and always considers the value of community. She repeatedly states all dots represent their own identity, but ultimately all structures have meaning when the individual part and its existence are valued. This point also defines the integral part of the ontological framework of Kim Sunhwa's art.

At the start of 2016 three types of experimental works emerged. First, the scattered dots of stars made of even smaller particles in a flat structure form a constellation, or a synthesis of symbols and tautological expressions builds up multiple layers, and the overlapping layers of embroidery on the hanji develop an independent worldview. The second is an attempt to produce celestial lights while showing the artist's command of powerful lines. The third is the appearance of the liberated lines of the various constellations on the background layer, and on top of it the embroidered stars layered over the hanji. The minimalistic simplicity and empty space, and the dreamy sensation of a space created by the use of overlapping hanji papers are all the changes that occurred in her work in this year.

Perfusion and Barriers

Infected with polio at the age of 4, Kim Sunhwa was an artist who always had to face physical barriers. After being diagnosed with breast cancer in 2015, she underwent surgery in January 2016, and radiation therapy until the following year. The situation became even more heartbreakingly when the artist died following a battle with a rare, incurable disease called aplastic anemia which she had been diagnosed with in 2018.

In 2016 her simple words "light shines brighter through darkness" resonated more profoundly with bleak sadness. It marked a period when the artist was at the height of her most intense artistic experimentation, while she also underwent cancer surgery. The very fact that these two contradictory versions of reality were happening at the same time is the key point in understanding Kim Sunhwa's art.

During the final two years of her life, that is 2017 and 2018, relatively large works were produced such as "*Starfield-1701, 1707*" and the artist left behind important works of art. A tendency toward the "process of reformation" shows unity and a relatively stable configuration forms a tightly composed structure. In "*Starfield-1704*" the hieroglyphic-like thick lines are used to build up the background layer and the new compositions of the picture plane show Simhyang's attempt to seek a new form of symbolism.

In 2017 Kim Sunhwa's artistic language of stars went through a drastic process of simplification. Colors are restrained and the liberated moving white lines expand the picture plane. "*Starfield 1708, 1712*" from the series of white line drawings demonstrate an impressive writing characterized by the lines and vigor in the strokes as a result of her dedication to the art of calligraphy.

In the works completed from the end of that year to 2018, the concentration of stars spherical in shape and the playing with the dancing lines work together, and the stillness of the horizontal landscape of dots is broken and transforms into a dynamic picture. "*Starfield-1809*" and "*Starfield-1810*" are her two final works which convey a clash between contrasting emotions. Facing her inevitable death, Simhyang engages in a playful pursuit with the quiet and peaceful "perfusion" and with the intense, dramatic lines and colors like the cosmic dance of "Sagittarius" or "Virgo" among the zodiac signs culminating in the pulsating Big Bang, she leaves behind the two opposite ends of her emotional spectrum as her final works.

Drawings of Stars on the Hanji

Embroidery is often considered to be the "aesthetics of self-discipline and healing." In recent years, while many artists in Korea among them women artists have adopted embroidery as a medium of expression, in overseas countries embroidery is also used as a means to symbolize femininity in contemporary Korea. Of course when we consider Kim Sunhwa's unique personal history, it may have been the most appropriate technique to express her worldview as well as a healing process. At the same time Kim Sunhwa's work which was far removed from the global current trends in contemporary art and did not engage with the discussion of femininity, was clearly a "spontaneous means of expression." This point of view is also well demonstrated in the way she transforms every stitch into melodies through her elegant expressiveness and free drawing.

Recently I had the opportunity to see her embroidered folding screen which she mentioned she made in her leisure time, and I remember the realistic, detailed embroidery techniques demonstrated a high level of skill just like the ones practiced by professional embroiderers. The main point I make is Kim Sunhwa's naturalism, the cosmic world that symbolized relationships, creation, and extinction, from the reformed stars to the lively brushwork and dramatic drawing, she sought to find a way not through the use of ink lines, calligraphy, canvas, or pigments, but through embroidery to express pure ideals and a world of hope.

Two Relationships

Kim Sunhwa worked with the hanji that she ordered from Shin Hyeon-se of Uiryeong, Gyeongsangbuk-do, a holder of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of hanji. Famed throughout the world, the traditional Korean paper used in cultural property restoration is a thin paper you can see through, but more durable than expected and a beautiful work of art in itself. Crafted by Shin's skillful techniques, the multi-layered hanji is made with 4~5 layers of paper which helped to inspire Kim Sunhwa's utterly unique sense of depth in the picture surface and layering work.

Another important relationship to consider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was her precious connection to her younger sister Kim Joonghee, who originally majored in music. Accompanying her sister's path of life as her fellow artist, close companion and family, Kim would share long moments of silence with her sister. The way in which she reorganizes the traces of work left behind by her older sister brings to mind the artist's embroidery, which she called "the art of time."

Five Years Sparked by Flames

Kim Sunhwa's pinnacle achievement took place in a short period of the final five years of her life. As she battled cancer, the commitment with which the artist pursued to her final work asserting her belief that all life is equally precious did not waver, but rather intensified her multifaceted approach to experimentation, leaving behind two final works both very different in character.

The structuralism I talk about goes beyond its existing structure system. The current paradigm focuses on the “structure” as a full and complete totality which is the sum of its parts, but the “structure” I present emphasizes the value of the existence of each individual part.

The artist's interests and the subject matter of her art are always about tiny matters. As though peering into the micro world, she cherishes the world composed of diminutive reduced particles, and her work is characterized by a structure of tiny stars like microscopic objects gathering to form a galaxy cluster in the universe.

As exemplified by the techniques and styles that she used, Kim Sunhwa is not an artist influenced by or immersed in the orthodoxies on which art history has prevailed or associated with the various trends that followed since Modernism.

In the five years her artistic development became fully realized from the start right up to her final works, Kim's creative process was guided more by her sincerity to her art and genuine attitude along with her use of line drawing, thread drawing, and hanji layering rather than her embodied thoughts, ontology, or art historical analysis to read any visual rhetoric. Throughout Kim Sunhwa's work a quality of plainness and clarity permeates that doesn't need to be surrounded by elaborate rhetoric.

Words from Lacan

Kim Sunhwa left behind around 60-70 works and dozens of drawings. The drawings of the universe (stars) on the hanji are particularly impressive, as they capture and transfer to the paper the breath of the artist who valued the purity of the physical qualities of nature and all small

things. The absolute value of Kim's art practice is not exemplified at a grand scale, and no scholarly examination of her work and career has ever been conducted. However, the significance of Kim Sunhwa's singular worldview should be preserved as a highly meaningful record not only in Daegu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but also in its art historical context. Suddenly, a Lacan quote comes to mind.

"What does it matter how many lovers you have if none of them can give you the universe?"

-Jacques Lacan

Translation | Elaine Kim, Co-Director of the World Jewellery Museum